

바늘구멍 대졸취업 '서로돕기' 몸부림

대학가 취업정보지 발간 열기

대학마다 학생들이 발간하는 취업정보지가 봄을 이루고 있다. 대학졸업자들의 취업이 해를 더할수록 어려워지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취업정보지 발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목화제

“요즘처럼 대졸자에게 취업문제가 절박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취업에 대해 개인별로 알아보는 방식은 정보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끼리의 공동작업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기 위해 취업정보지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광운대 졸업준비위원회 조남영(27·전기과3) 위원장의 말이다.

대졸자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로도 금방 나타난다.

지난해 군입대·대학원진학 등을 제외하고 대학졸업자의 순수한 취업률은 50%를 넘지 못했고 87년말 현재 대졸자의 실업률은 5.7%로 전체실업률의 두 배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정보지에는 <문>(동덕여대), <비룡>(인하대) 등 취직의 염원을 느끼게 하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취업정보지는 대부분 각 대학의 졸업준비위원회가 발간하고 있다. 국민대의 경우 <날알>이라는 이름의 정보지를 매년 1학기 초에 펴낸다. 지난 84년부터 이같은 정보지를 지금까지 5번 펴낸 국민대 졸업준비위는 올해에도 4월께 발간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대학 졸업준비위 전기문(30·법학3) 위원장은 “일반 시중에 나오는 전문취업정보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이

<88 명지진로안내>를, 숭실대는 <88 취업정보>, 광운대는 <참빛> 등을 펴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이같은 정보지를 펴내기 위해 한창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취업정보지는 대부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기초요령에서부터 대기업·국영기업·연로사 등의 근무여건이나 보수 등도 싣고 있다. 또한 대학원·군입대·유학 등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고, 부록으로 각 기업의 입사시험문제도 싣는다.

각 졸업준비위는 이밖에도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을 초청해 회사정보나 경험담을 듣는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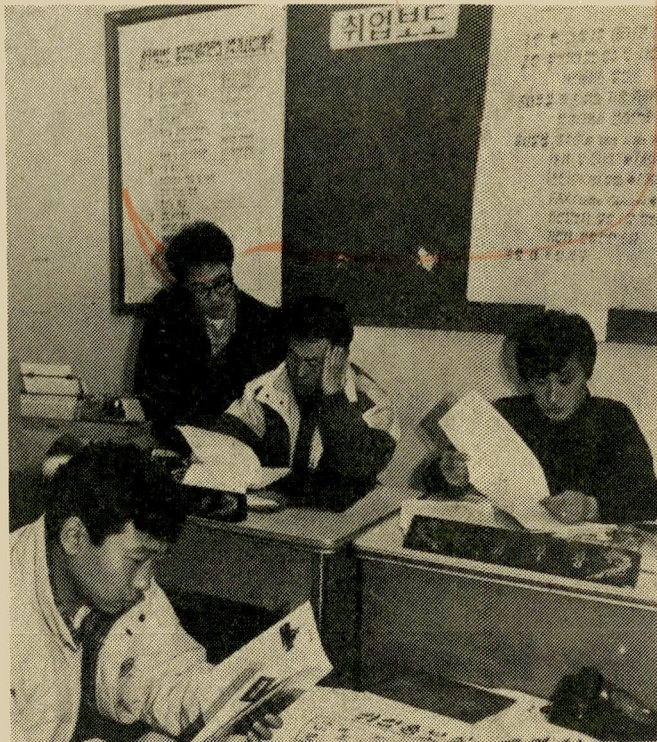
시험문제등 자료교환 효율적 대응 20개대 지역협의체 구성...선배초청도

같은 작업을 펴나간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날알> 6호를 졸업대상자는 물론 다른 재학생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대의 순취업률(군입대·대학원진학 등을 뺀 통계)은 46.6%이다.

이밖에 명지대 졸업준비위는

면, 방학 때에는 외부 강사까지 초빙하는 영어강의를 개설해 놓고 있다.

취업정보지의 성과에 대해 이효성(28·국민대 행정4·기아산업입사)씨는 “진로결정에 좋은 참고서가 됐다”면서 “특히 혼자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다양한 입



국민대 졸업준비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취업대책 노력의 하나로 취업정보지 발간을 위해 바쁜 손길을 움직이고 있다.

〈이종찬 기자〉

협의회’를 결성했으며 지난해 말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 앞으로 △누적되는 대졸실업자의 대책 마련 △사범대 졸업생들의 교원임용정책 해소 △여성고용 촉진법의 실행 등 6개항의 주장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졸자 취업난이 해소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취업정보지 발간현상은 점차 여러 대학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상 기자〉

사시험문제까지 수록돼 있어 가고 싶은 직장만 결정되면 집중적인 대비를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업정보지 발간 등의 노력 속에서도 취업난이 계속되자 국민대 등 20개 대학은 지난해 9월 ‘경인지역졸업준비위 대표자